

빅데이터 시대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법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

**5 Dimensional READING &
9 STEPS of LEARNING**

원동연 지음

김영사



개정판을 내면서 10
 프롤로그_ 창조적 지성 13

1부 학문, 그 본질에 다가서며

1장 정보처리 능력16
 1. 성적이 아닌 실력 위주의 학습 16
 2. 지식이 아닌 지혜 위주의 학습 20
 3. '무조건 열심히'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22
 4. 100/10 학습 원리 25
 5. 학습의 핵, 정보 26
 6. 정보처리 면에서 본 학문의 9단계 31

2장 5차원 독서법과 독서치료41

2부 학문의 9단계

1장 빨리 읽고 이해하기	50
1. 정보의 양, 왜 중요한가?	50
2. '무조건 빨리'가 아닌 '빠른 이해'를 목표로	51
3. 빠른 이해를 좌우하는 센스 그룹	52
4. 나의 속해 독서 수준은?	55
5. 속해 독서를 위한 준비운동	60
6. 속해 독서를 위한 사선 치기	66
7. 속해 독서법 실제로 해보기	73

2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기 80

- 1. 정확한 이해, 왜 중요한가? 80
- 2.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81
- 3. 글 분석을 위한 기본 훈련 84
- 4. 다섯 가지 질문으로 해결하는 글 분석 86
- 5. 나의 글 분석 능력 측정하기 88
- 6. 글 분석을 좌우하는 판단력과 결단력 97
- 7. 신문 사설 글 분석 100
- 8. 글 분석법 실제로 해보기 101

3장 사실과 감정 구별하기 104

- 1. 감상의 중요성 104
- 2. 감상의 열쇠, 보물 찾기 106
- 3. 보물 찾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 109
- 4. 보물 찾기 1 - 상상하기 111
- 5. 보물 찾기 2 - 객관적 자료 참고하기 115
- 6. 보물 찾기 3 - 비교·정리하기 116
- 7. 보물 찾기 실습 117
- 8. 글 감상법 실제로 해보기 120

4장 전체를 본 후, 부분 보기 123

- 1. 질서화의 중요성 123
- 2. 정보의 질서화 - 전체를 본 후, 부분을 보는 것 124
- 3. 정보 질서화의 구체적 효과 126
- 4. 전체를 보는 고공 학습법 - 고공표 만들기 128
- 5. 부분을 보는 상관관계 학습법 - 연결 고리 찾기 129

6.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의 활용	132
7.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 실습 1	134
8.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 실습 2	142
9.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 실습 3	158
10. 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 실제로 해보기	160

5장 개념 심화하기 163

1. 구체화의 중요성	163
2. 구체화를 위한 개념 심화 학습법	165
3. 개념 심화 학습법 실습	166
4. 개념 심화 학습법 실제로 해보기	170

6장 의식화하기 173

1. 의식화의 중요성	173
2. 의식의 틀, 세계관	174
3. 정보를 의식화하는 질문 학습법	178
4. 질문 학습법 실습	180
5. 질문 학습법 실제로 해보기	183

7장 글로 표현하기 188

1. 글쓰기의 중요성	188
2. 글쓰기의 과정	189
3. 평면적 글쓰기와 입체적 글쓰기	191

7-1장 정확하게 쓰기 194

- 1. 평면적 글쓰기는 글 분석의 역순으로 194
- 2. 다섯 가지 질문으로 완성하는 평면적 글쓰기 196
- 3. 평면적 글쓰기 실습 199
- 4. 평면적 글쓰기 실제로 해보기 202

7-2장 보물 숨기기 204

- 1. 입체적 글쓰기의 중요성 204
- 2. 보물을 숨기는 입체적 글쓰기 206
- 3. 보물 숨기기 1 - 연상하기 208
- 4. 보물 숨기기 2 - 함축·상징하기 211
- 5. 보물 숨기기 3 - 확인하기 216
- 6. 입체적 글쓰기 실습 217
- 7. 입체적 글쓰기 실제로 해보기 220

7-3장 자유자재로 응용하기 222

- 1.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글쓰기가 진짜 실력 222
- 2. 일기 쓰기 223
- 3. 편지 쓰기 226
- 4. 보고서 쓰기 229
- 5. 논술문 쓰기 231

8장 그림으로 표현하기 249

1.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란? 249

9장 함수로 표현하기 254

1. 수학적 언어와 서술적 언어 254

2. 수학적 언어와 함수 258

3. 수학적 언어와 구체화 능력 260

3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1. 지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266

2. 5차원 전면교육이란? 270

에필로그_ 한민족 교육 공동체와 글로벌 교육 공동체의 비전 282

부록_ 국가 미래 교육의 새 패러다임 수용성 교육 285

해답 295

20년 전 한 권의 책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인격적 인성인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 능력·인간관계 능력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갖출 수 있는 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이아몬드칼라라고 불렀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우리는 1만 5,000명 이상의 교사, 부모, 전문가가 함께 이 주장이 가능한가에 대해 실험해왔다. 그리고 그 결실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6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한 후, 엔지시 2중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본 교육을 통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1997년 몽골 밝은미래종합학교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본 교육을 적용해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고, 2001년 몽골의 나차긴 바가반디 대통령과 필

자의 면담을 통해 2002년 몽골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본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2006년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을 적용했으며, 2012년 탄자니아연합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12개국 이상에서 본 교육을 실시해왔다.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에서 최초로 본 교육을 적용한 이후 벨국제학교 설립, 동두천중·고등학교의 전면교육 실시, 그리고 미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디아글로벌학교를 통해 귀한 열매들을 수확해왔다. 그리고 2017년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5차원 전면교육이 수용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미래 교육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열매를 바탕으로 책을 개정해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다섯 권부터 개정을 시작했다. 첫째, 전인격적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수용성을 길러줄 핵심 역량이 담긴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을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정했다. 둘째, 창조적 지성을 길러줄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는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를 수정·보완했으며 셋째, 언어 수용성을 확보해 누구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제시한 《5차원 영어 학습법》을 《5차원 영어》로 보완 재개정했다. 넷째,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수학이 언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인식함으로써 누구나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융합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는 《5차원 수학》을 이전에 발간한 《대한민국 수학교과서》를 대신해 수정 재개정했다. 다섯째, 바른 세계관을 기를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 《5차원 독서치료》를 재개정했다.

이 책은 이 중 학문의 9단계를 바탕으로 창조적 지성을 길러줄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이다. 창조적 지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 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높일 근본 방안을 이 책에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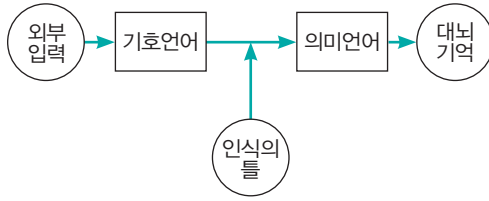
현대는 빅데이터 시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능력에 따라 데이터에 담긴 패턴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를 찾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처리 능력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디제이 파틸(DJ Patil)은 현대인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통찰력과 데이터를 이용해 환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번에 개정한 책이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의 정보처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창조적 지성

창조적 지성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틀을 말한다. 인간은 이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 자신의 지식 체계에 연결해 기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때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태를 띤다. 기호로 된 언어(symbolic language)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면, 학습자는 이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해석한 내용은 의미언어(semantic language)로 재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의미언어를 비로소 대뇌에 기억하는 것이다.

외부 입력과 인식의 틀에 의한 재해석



학습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기호언어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자신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을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받아들여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진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의 틀을 바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 모든 교육에 앞서 필요하다.

1부

—

학문,
그 본질에
다가서며

① 성적이 아닌 실력 위주의 학습

1등 콤플렉스

콤플렉스^{complex}는 어떤 문제에 단순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보통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인의 특징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 예가 바로 ‘1등 콤플렉스’, ‘성적 콤플렉스’가 아닐까 싶다.

몇 년 전 대한가족문화학회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의 79%가 ‘내 자녀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녀 문제에 국한하지 않

는다.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거는 기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현실적으로 성적이 높으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야 결국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성적이라는 수치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나만 해도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왕이면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열된 교육 현실을 바라보며 성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문제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이 그리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대인에 버금갈 만큼 열성적인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1, 2위를 자랑하지만 산업 경쟁력은 굉장히 취약하며, 고학력 실업자가 수도룩한 상황에서도 정작 기업들은 쓸 만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도 학문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계적인 석학도 많지 않고 노벨상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성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사람들의 실제 삶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날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열심’이 모자란 탓일까? 아니다. 오히려 ‘열심’이 지나쳐 1등만 향해 달려온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만 급급해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적은 높지만 실제로 필요한 일을 처리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길러냈다. 즉 성적 위주의 가치적 교육이 영어 성적은 높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역사 성적은 높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며, 윤리 성적은 높는데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체육 성적은 높으나 건강하지 않으며, 과학 성적은 높는데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급격히 변하고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실력 위주의 학습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을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단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다원화하고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갈 수 있도록 실제적 능력을 기르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능력을 쌓아주어야 한다.

이는 좋은 학벌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과 만나 사업이나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막힘없이 나눌 수 있는 능력,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재빨리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따라 불거지는 정치적·사회적 사건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순간순간 일어나는 개인적 일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력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는 것,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준비 과정의 옳고 그름과 합리성을 따져 주변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실력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지닌 재능이 있고 이를 최대한 계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재능을 발휘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식이란 지혜 위주의 학습

지식 위주의 학습 한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극해왔으며 열성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했다. 인간이 인간다운 가장 큰 특징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이란 아는 것, 즉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는 것=힘’이라는 등식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2020년이 되면 73일마다 정보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이 금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보를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는 시대에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면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로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3일 단위로 정보가 두 배씩 증가한다



지혜 위주의 학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재빨리 가려내 취하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는 지식에 머무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능하다.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단순하고 단편적 인식을 뜻하는 말로, 이를테면 '1+1=2'라는 하나의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다. 반면 지혜는 몇 가지 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보다 본질적 힘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컴퓨터에 아주 많은 자료를 저장해 놓았고, 아무리 좋은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원도 같은 운영 시스템이 필요

하다. 그런데 똑같은 기종의 컴퓨터에 똑같은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해도 운영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저급 시스템에서는 저급한 결과가 나오지만, 고급 시스템에서는 고급한 결과가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들어온 지식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 곧 지혜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폭발적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보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무조건 열심히'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실력과 지혜를 키우지 못하는 근본 이유

우리가 성적이 아닌 실력, 지식이 아닌 지혜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이나 공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정신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정신 차려서, 많은 시간 동안 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애처로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공부를 잘하



지 못하는 학생,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력은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이다. 이제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적합한 방법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나는 어릴 때 수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른바 개헤엄을 스스로 익혔다. 개헤엄은 모양새가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집 앞에 있는 저수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잘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영에 정통한 코치가 레슨을 해주는 실내 수영장에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는 나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하게 되었다. 훌륭한 코치에게 제대로 된 수영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때 내가 만약 오기가 발동해 “아니, 이 녀석이 어디 가서 3~4개월 수영을 배우더니 30~40년 수영을 해온 나보다 더 잘해!” 하고는 녀석을 이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다고 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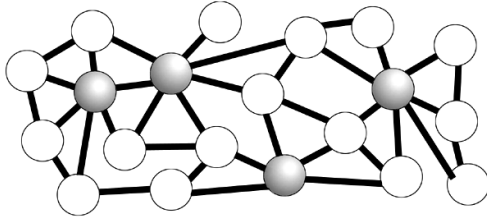
밤 12시가 되어 졸리면 커피나 각성제까지 먹고 새벽 2~3시까지 개해업을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실력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올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수영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개해업으로 세계신기록을 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이나 정치 행위 또는 연구원들의 연구나 학생들의 공부 등 모든 일은 자신이 아는 방법론의 한계까지만 계발이 가능하다.

학생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도 학문이나 교과목의 원리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개해업 치듯이 공부를 한다. 그런 까닭에 자기가 터득한 공부 방법으로 가능한 만큼만 발전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까지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문에 정통하고 그 교과목을 잘 아는 사람에게 원리와 특성을 배우고, 가장 좋은 공부 방법도 익혀야 한다. 그런 사람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다.

기업에서도 개인이나 조직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기에 앞서 우선 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기적 관련성을 맺는 지식들



4 100/10 학습 원리

성적이 아닌 실력, 지식이 아닌 지혜 위주로 학습 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습 자체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학습의 핵심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100/10 학습 원리’라고 할 수 있다. 100/10 학습 원리란 100가지 지식을 가르쳐야 할 때 100가지 지식을 순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지식 중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지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연관성이 큰 10가지를 가르쳐주면 나머지 90가지는 그 10가지와의 관련성에 따라 자동으로 알게 된다.

같은 시간에 똑같이 소리 높여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정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라고 할 경우 중요도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10가지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가장 상관관계가 큰 10가지를 중요한 것부터 공부했다면 그 10가지의 유기적 상관성에 따라 100가